

# 한자 형태소 감수성을 통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어 교육 연구\*

박 영 주 · 이 선 웅\*\*

(경희대학교 석사과정) · (경희대학교 교수)

## 〈 차 례 〉

- |           |             |
|-----------|-------------|
| 1. 서론     | 4. 결과 분석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및 한계점 |
| 3.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국문 요약〉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 형태소 감수성과 한자어 어휘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그 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먼저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자어의 한자 형태소를 분리적으로 인지하고 그 분리된 한자 형태소의 의미를 추측하는 능력을 한자 형태소 감수성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접사의 기능과 의미가 뚜렷한 3음절 한자어 파생어를 평가문항으로 개발하여 한자 형태소 감수성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나아가 한자어 감수성의 정도와 한자어 어휘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한자 형태소 감수성이 높으면 한자어 어휘력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 형태소에 초점을 맞춘 어휘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 본고는 박영주(2021)의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접사 인지에 대한 연구' 석사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 박영주 제1저자, 이선웅 교신저자

◎ 주제어: 한자 형태소 감수성, 한자어 어휘력, 상관관계, 한자어 교육

## 1. 서론

외국어 혹은 제2언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성패를 평가름하는 주요한 핵심 요소는 어휘이다. 윌킨스(Wilkins, 1972)는 “문법이 없이는 의미 전달이 힘들지만 어휘 없이는 아무것도 전달할 수 없다.”라고 하여 언어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어의 어휘는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의 3종 어휘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58.5%인데 한자어가 고유어나 외래어와 함께 사용되는 비율까지 합치면 69.4%가 된다.<sup>1)</sup> 따라서 한국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하려면 한자어 어휘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자어는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단어 형성에서 매우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

최근 신어 조사 보고서 목록을 보면 어근이나 접사 등의 한자 형태소가 포함된 어휘의 비율이 고유어나 외래어 형태소가 포함된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sup>2)</sup>

1)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표제어 어종별 어휘 수에 따르면 고유어 111,299개 25.9%, 한자어 251,478개 58.5%, 외래어 23,196개 4.7%, 혼종어 54,289개 10.9%를 차지한다.

2) 신어의 결합 유형 <2014년 신어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원어		단어 수	비율(%)	결합 유형
단일 원어	고유어	20	5.97	고, 고+고, 고+고+고
	한자어	45	13.43	한, 한+한, 한+한+한
	외래어	96	28.06	외, 외+외, 외+외+외
계		161	48.06	
복합어	고+외	25	7.46	고+외, 외+고
	고+한	57	17.01	고+한, 한+외, 한+고+한, 고+한+고
	한+외	86	25.67	한+외, 외+한, 한+외+한, 외+한+외
	고+외+한	6	1.79	고+외+한, 외+고+한, 한+고+외, 외+한+

이는 신조어 생산에도 고유어나 외래어 형태소보다 한자 형태소가 더 자주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자어 복합어를 형성하는 형태소의 경우 생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자어를 이루는 접사와 어근에 대한 인식은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자어를 구성하는 접사 혹은 어근이 분리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 한자 형태소의 의미까지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한국어 어휘에 대한 이해력과 어휘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 파생어에서 한자 형태소가 분리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분리된 한자 형태소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을 한자 형태소 감수성<sup>3)</sup>이라고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자 형태소 감수성은 일반적인 사물에 대한 감수성이 ‘정도’의 문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자 형태소 감수성도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 기능과 의미가 뚜렷한 3음절 한자어 파생어에 쓰이는 접사를 분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리한 접사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지를 평가 설문지로 개발하여 한자 형태소 감수성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형성된 한자 형태소 감수성이 한자어 어휘력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는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한자 형태소 감수성을 키워주는 데 중요한 하나의 전략임을 밝히고 한국어 어휘 교육에 시사점이 되고자 하였다.

---

				고, 고+한+고+외
계	174	51.94		
합계	335	100		

3) 한자 형태소 감수성에 대한 정의는 2장에서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한자 형태소 감수성의 개념 및 정의

본 연구를 논의하기에 앞서 ‘한자 형태소 감수성(感受性)’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자 형태소 감수성’의 ‘감수성’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언어 교육에서 언어에 대한 감수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감수성’에 대한 정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개념과 이웃하는 학문에서 사용하는 개념, 그리고 국어학에서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는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감수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감수성’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표준국어대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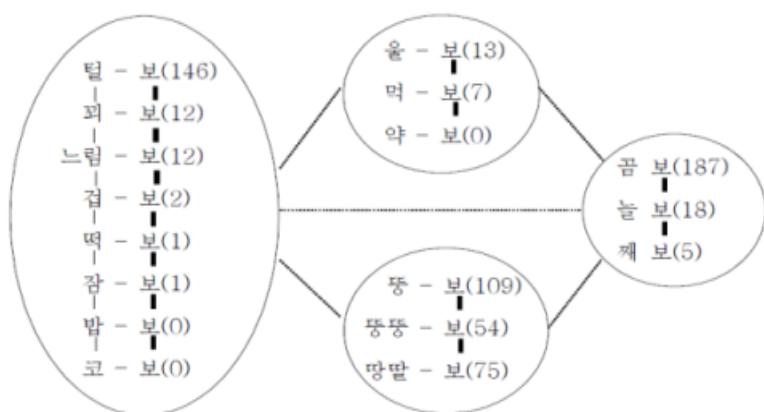
감수성(感受性) :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감수성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1)과 같이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 인하여 느끼게 되는 성질이나 성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인지적 정도성을 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색채 감수성’, ‘문학적 감수성’, ‘언어 감수성’, ‘환경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 등 주로 예술과 문학, 문화 분야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감수성을 한자어에 대하여 인지하는 ‘정도’로 파악하겠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감수성’의 개념은 대체로 추상적인 의미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감수성’이라는 용어는 언어학에서 말하고 있는 ‘심리 어휘부(mental lexicon)’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언어학에서의 ‘어휘부’는 ‘국어 단어의 총 집합, 문법이론에서의 저장부, 어휘 관련 사실을 저장하는 실재 기억장소, 대량의 어휘 정보’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어휘부를 송원용(2005: 32)에서는 언어학적 문

법 모듈로 간주하는 이론 어휘부(theoretical lexicon)와 어휘에 대한 머릿속 사전으로 간주하는 심리 어휘부(mental lexicon)로 나누었다. 심리 어휘부를 논의한 연구로는 박진호(1994), 채현식(2000), 송원용(2002), 안소진(2011) 등이 있는데 이들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심리 어휘부는 심리적 실재성을 말하며 심리적 실재성은 접사와 같은 단어 형성 기제들이 저장되는 곳이다.

이들 연구 중 채현식(2000: 35-38)은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의 연결망을 도식화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동 논문에 따르면 단어 형성 기제는 심리 어휘부를 대상으로 하며, 심리 어휘부에 충분한 양의 단어가 저장되면 화자는 기억된 단어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패턴(pattern)을 발견하게 되고 이 패턴이 화자의 조어 능력을 설명하는 기제가 된다고 하였다. 동 논문(2000: 35-38)에서 제시하는 심리 어휘부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채현식(2000)의 심리 어휘부

[그림 1]은 심리 어휘부에 등재된 접미사 ‘-보’를 공통으로 하는 파생어들을 통해 ‘-보’에 대한 유추의 패턴이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단어들의

일정한 내적 구성 원리를 파악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어학에서의 논의는 고유어 접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본 연구의 한자 형태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즉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수영장, 운동장, 축구장, 정류장, 경기장, 주차장...’ 등과 같은 한자어들이 머릿속 어휘부에 저장되고, 이후 ‘-장(場)’이 포함된 단어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장’이라는 형태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장’이 포함된 단어들의 의미를 통하여 ‘-장’이라는 형태소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장’이 포함된 단어들 속에서 ‘-장’을 분리적으로 인식하고 그 의미를 추측하여 아는 능력이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한자 형태소 감수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자 형태소 감수성을 형태적 감수성과 의미적 감수성으로 나눈다. 형태적 감수성은 ‘수영장’이라는 한자어에서 ‘-장’으로 분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의미적 감수성은 분리된 ‘-장’이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sup>4)</sup>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한자 형태소 감수성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한자 형태소 감수성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형태소를 인식하여 그 특정 형태소를 분리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능력

### 가. 형태적 감수성

한자어의 구성 요소 중 특정 형태소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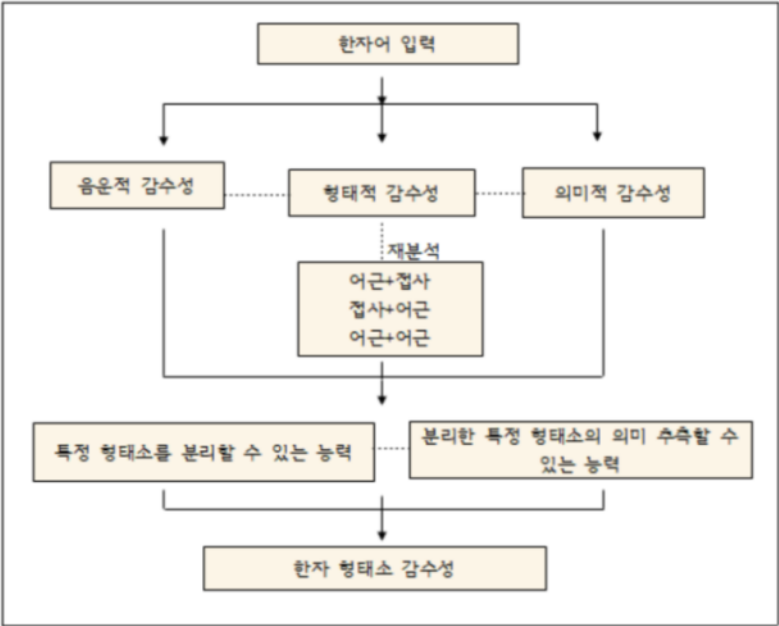
### 나. 의미적 감수성

분리한 특정 형태소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한자 형태소 감수성 개념의 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4) 한자 형태소의 범위와 같은 형태소의 언어학적 개념 정의는 본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자어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한자어 접사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의 정도나 인식할 수 있는 요소로만 파악하였다.



[그림 2] 한자 형태소 감수성 모형

[그림 2]는 한자 형태소 감수성을 도식화한 모형이다. 한자 형태소 감수성은 한자어가 입력되면 머릿속 어휘 체계가 작동하여 음운<sup>5)</sup>과 형태,

5) 음운적 감수성은 한자어를 다른 어종의 어휘들과 구별하는 능력이다. 송기중 (1992: 386-389)에 따르면 한자어의 음운 체계는 고유어의 음운 체계와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며 한자어에서 빈도가 높은 음절과 고유어에서 빈도가 높은 음절의 어휘들은 서로 다른 어휘 목록을 가진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한자어의 음운 체계에서 [ㄱ, ㄴ, ㄷ, ㅁ, ㅂ, ㅅ, ㅈ]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한 두 개의 어휘에 나타나며 고유어에 고빈도로 나타나는 [바, 으, 스]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화자들은 한자어에만 나타나지 않는 전형적 음절과 고유어의 전형적인 음절을 근거로 한자어를 판별할 수 있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운 감수성을 한자어가 다른 어종의 어휘와 구별되는 능력이라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 형식으로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글자로 썼을 경우 형태적 감수성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글자로 조사되기 때문에 음운적 감수성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아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의미의 유사성에 기대어 3가지로 분리된다. 입력된 한자어의 형태는 ‘접사와 어근 혹은 어근과 접사, 어근과 어근’의 구성으로 재분석될 수 있다.<sup>6)</sup>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자어의 구성요소가 분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리된 구성요소, 즉 한자 형태소의 의미를 추측하여 아는 것이 한자 형태소 감수성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자 형태소 감수성은 교육적 방법으로서의 접근이다. 한국어 학습자가 ‘시험장’이라는 단어가 처음 보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장소’라는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은 기 학습한 ‘수영장, 운동장, 축구장, 경기장...’ 등과 같은 어휘들을 통하여 ‘-장’이라는 접사의 형태를 분리할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에 ‘-장’이 결합되어 형성된 단어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자 형태소 감수성을 키워 주는 교육을 통하여 한국어 어휘에 대한 이해와 어휘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교육적 방법으로 ‘한자 형태소 감수성’이란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한자 형태소 감수성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동일한 의미와 기능을 나타내는 특정 형태소가 포함된 단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험은 한자 형태소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와 더불어 한자 형태소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인은 교육이다. 한자어를 구성하는 특정 형태소에 집중하게 하는 교수 방법은 한자 형태소 감수성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Clark(1995: 393-405)에 따르면, 어휘부는 다양한 언어 자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

6)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그림 2]에서 재분석을 위해서는 음운, 형태, 의미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셋을 포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주5)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설문 형식으로 한자 형태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평가 문항에 해당되는 어휘를 글자로 나타내었을 경우 음운적 감수성이 형태적 감수성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설문 문항으로 음운적 감수성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구조와 내용이 수정·보완되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곳이며 그 저장부는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이 처음 접한 단어를 기존의 단어 연결망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편입시킴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높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한자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할 경우 한자 형태소 감수성의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자어에 대한 교육은 특정 한자어를 구성하는 표층적인 의미와 심층적인 의미를 다층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교수절차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단어 형성법을 활용한 적절한 한자 형태소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 형태소 감수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자 형태소 감수성을 활용하여 모르는 어휘를 접하게 되어도 그 어휘의 형태나 의미를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고 유사성에 기대어 특정 한자 형태소에 대한 의미를 추측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어휘 학습력이 증진되며 이는 한자어 어휘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한국어 어휘력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자 형태소 감수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 한자 형태소 감수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 가. 선형적 경험

동일한 의미와 기능을 나타내는 특정 형태소가 포함된 단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험

#### 나. 외부의 자극

한자어를 구성하는 특정 형태소에 집중하게 하는 교육

## 2.2 한자어 어휘력의 개념 및 정의

본 연구에서는 한자 형태소 감수성과 한자어 어휘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자어 어휘력 평가는 한자어 어휘력의 개념과 정의를

따라 평가의 범위와 내용을 한정하겠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휘력을 ‘마음대로 부리어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어휘력’이라는 용어는 많은 연구에서 어휘 능력, 어휘 지식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휘력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어휘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양적 어휘력과 질적 어휘력으로 나눈 논의들이 대부분이며 김광해(1993), 이영숙(1997), 이기연(2007) 등이 있다. 김광해(1993: 306)에서는 어휘력을 어휘력의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데 양적 어휘력은 화자가 얼마나 많은 어휘를 알고 사용할 수 있느냐의 능력으로 단어의 수를 나타내고, 질적 어휘력은 어휘 및 그것과 관련된 단어에 대해 어느 정도로 깊이 알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질적 어휘력에는 발음과 철자, 단어의 구조와 같은 어휘의 형태적 측면과 다른 어휘와 맺고 있는 의미 관계, 그리고 이런 어휘를 이해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어휘의 화용적 측면에서 사용되는 어휘로 세분하였다.

또한 어휘력을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로 정의한 논의도 있는데 Nation(2001)이 대표적이다. Nation(2001)에 따르면 “이해 어휘는 듣고 읽는 활동 중에 단어의 형태를 인식하여 그 의미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고, 표현 어휘는 말하거나 쓰기 활동을 통해 그 의미를 표현할 때 적합한 형식의 말하기와 쓰기 단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어휘력을 의사소통능력에 중점을 두고 형태, 의미, 사용 중 사용의 측면을 강조한 연구이다.

최근 논의로는 이기연(2012)과 신명선(2017)을 들 수 있다. 이기연(2012)에서는 어휘력의 평가 요소를 도출하여 어휘력을 ‘지식, 기능, 태도’로 삼분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고, 신명선(2017)에서는 어휘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언어(지식)중심관점, 인지중심관점, 맥락중심관점, 성향중심관점, 소통중심관점’ 등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어휘력을 다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따르자면, 어휘력의 세부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휘력 평가 항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국어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제시한 평가 요소는 될 수 있지만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한자어 어휘력 평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사용의 측면을 강조한 어휘력은 본 연구의 어휘력 평가와는 거리가 있고, 발음과 철자는 본 연구의 어휘력 평가 요소로 구성하기에 쉽지 않다. 평가의 대상으로 발음과 철자는 의미나 쓰임은 모른 채 단순히 외워서 아는 능력을 어휘력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어휘는 파생어이다. 파생어의 형성 구조를 이해하여 한자 형태소를 분리적으로 인식하고 그 의미를 추측하여 아는 것이 본 연구가 주장하는 감수성의 핵심 요소이다. 김광해(1993: 313)를 따르자면, 유의어와 반의어의 의미관계를 어휘망으로 활용할 경우 어휘량을 확장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즉, 유의어들 사이에 존재하는 섬세한 의미 차이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사고력 훈련의 도구가 되고 유의어에 의해 단어들을 유형별로 인식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어휘 의미에 관한 분석력이 향상이 되면 고도의 언어 구사 능력을 획득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휘력의 구성 요소에 유의어와 반의어의 의미관계를 포함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어진 단어를 문맥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단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문장 속에서 적절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휘의 의미적 정보를 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한자어 어휘력의 개념과 범위를 한정한다.

#### (4) 가. 어휘의 형태적 측면

단어의 구조를 아는 능력

#### 나. 어휘의 의미적 측면

다른 어휘들과의 의미관계 중 유의어와 반의어를 아는 능력

다. 어휘의 통사적 측면

문맥 안에서 어휘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3. 연구 방법

#### 3.1 실험 참여자

본 연구의 실험 참여자는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한 국내·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참여자의 한국어 숙달도를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한 학습자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한국어의 기본 어휘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한자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시기가 중급이고 둘째, ‘국제통용한국어표준교육과정’에서 한자 형태소, 즉 접사가 등장하는 시기가 3급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어 학습자는 총 71명이었으며, 이들 중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지 않은 학습자와 동일한 번호로 응답한 학습자는 평가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분석 대상이 된 실험 참여자는 총 60명(남:6명, 여:54명)으로 한자문화권 30명과 비한자문화권 학습자 30명이다. 실험 참여자는 95%가 20대였으며, 이들의 한국어 수준은 6급을 취득한 응답자가 23명(38.3%)으로 가장 많았으며, 5급을 취득한 응답자가 21명(35%)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어 학습기간,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 다른 외국어 공부 경험, 한자어 공부 경험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한국어 학습기간은 3년 이상인 응답자가 31명(51.7%), 1년~1년 6개월인 응답자가 13명(21.7%)이었다. 중복응답이 허용된 한국어 학습 장소 문항에는 ‘한국 내 대학의 어학원’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36명(60%), ‘본국 내 대학교’로 응답한 응답자가 22명(36.7%)이었다.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학문 목적(학부, 석사, 박사전공)’이 37명(61.7%)로 가장 많았다. 60명의 응답자는 모두 다른 외국어

공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한자어 공부 경험은 34명(56.7%)이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이들의 국적은 중국 10명, 일본 10명, 베트남 10명, 카자흐스탄 15명<sup>7)</sup>, 스리랑카 5명, 우즈베키스탄 2명이었고, 프랑스,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콜롬비아, 태국, 라트비아, 벨기에에는 각 1명이었다.

## 3.2 실험 도구

### 3.2.1. 한자 형태소 감수성 평가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자 형태소 감수성에 대한 인식과 한자어 어휘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자 형태소 감수성 평가 도구를 다음과 같은 지침을 기준으로 개발하였다.

#### (가) 한자 형태소 감수성 평가 문항 개발 지침

한자 형태소 감수성 평가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문항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문항 작성 지침에 따라 총 30문항을 개발하였다.

첫째, 평가 대상 한자어 어휘는 3음절 파생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3음절에 쓰이는 한자 형태소는 그 의미와 기능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둘째, 한자 형태소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한자 형태소는 ‘국제통용한국어표준교육과정’의 어휘 목록 중 접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접사들이 포함된 3음절 한자어를 ‘국제통용한국어표준교육과정’의 어휘 목록에서 추출하고 또한 3종의 대학기관(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교재에서 고빈도

---

7) 비한자문화권 참여자 중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참여자가 15명으로 월등히 많았다. 참여자의 국적이 고루 분포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 국적별로 한자 형태소 감수성과 어휘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로 사용되는 한자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어휘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셋째, 문항 유형은 사지선다형 유형으로 개발하여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넷째, 사지선다형 문항의 한자어 어휘들은 품사, 음운 현상, 형태, 글자수를 동일하게 하였다.

다섯째, 익숙하지 않은 문항 유형은 <보기>를 제시하여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여섯째, 한자 형태소 감수성 평가 도구는 한자 형태소 감수성의 정의에 따라 한자 형태소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과 분리한 한자 형태소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곱째, 개발된 한자 형태소 감수성 평가지를 구글 설문지로 작성하였다.

#### (나) 한자 형태소 감수성 평가 문항 내용 및 유형

<표 1> 한자 형태소 감수성 평가 내용

구분	내용	유형 및 문항 수	
1) 형태적 감수성 평가	특정 한자 형태소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 평가	접두사 5문항	15문항
		접미사 5문항	
		고유어 5문항	
2) 의미적 감수성 평가	분리된 한자 형태소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능력 평가	유형1, 4문항	15문항
		유형2-1, 4문항	
		유형2-2, 7문항	

<표 1>8)의 한자 형태소 감수성 평가는 형태적 감수성 평가와 의미적 감수성 평가로 나눈다. 한자 형태소 감수성 평가의 형태적 감수성 평가

는 한자어를 보고 직관적으로 특정 한자 형태소를 분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고 의미적 감수성 평가는 분리한 특정 한자 형태소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평가이다. 구체적인 문항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	제시 문항									
1) 형태적 감수성 평가	다음 단어를 <보기>처럼 분리할 수 있으면 ① 또는 ②를 고르고, 분리할 수 없으면 ③을 고르십시오.									
	<table><tr><td>&lt;보기&gt;    ① 저학년</td><td>② 박물관</td><td>③ 아버지</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저 + 학년</td><td style="text-align: center;">박물 + 관</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table>	<보기>    ① 저학년	② 박물관	③ 아버지	↓	↓	↓	저 + 학년	박물 + 관	×
	<보기>    ① 저학년	② 박물관	③ 아버지							
	↓	↓	↓							
	저 + 학년	박물 + 관	×							
	2.    경제학    →    (									

[그림 3] 형태적 감수성 평가 문항 유형

1)은 형태적 감수성을 평가한다. 주어진 3음절의 단어를 보고 직관적으로 접두사 또는 접미사를 찾아 분리하거나 혹은 분리할 수 없는 고유어인지를 평가하는 문항 유형이다. ‘경제학’의 접미사 ‘-학’, ‘총감독’의 접두사 ‘총-’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은 한자 형태소 감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주어진 모든 단어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려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리할 수 없는 고유어도 포함하였다. 형태적 감수성은 분리한 ‘-학’이나 ‘총-’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8) <표 1>의 1) 형태적 감수성 평가 문항 유형은 [그림 3], 2) 의미적 감수성 평가 문항 유형은 [그림 4]에서 자세히 다룬다.

유형	제시 문항
2) 의미적 감수성 평가 유형 1	<p>밑줄 친 글자의 공통된 의미를 고르십시오.</p> <p>17.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이번에 나온 <u>신</u>제품은 잘 팔린다. · 우리는 다음 주에 <u>신</u>도시로 이사할 예정이다.</span></p> <p>① 나누는      ② 바꾸는      ③ 새로운      ④ 올바른</p>
3) 의미적 감수성 평가 유형 2-1	<p>밑줄 친 글자와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을 고르십시오.</p> <p>20.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주말에 친구들과 운동<u>장</u>에서 축구를 했다.</span></p> <p>① 공연<u>장</u>      ② 전시<u>장</u>      ③ 주방<u>장</u>      ④ 주차<u>장</u></p>
4) 의미적 감수성 평가 유형 2-2	<p>다음 중 밑줄 친 글자의 뜻이 다른 하나를 고르십시오.</p> <p>24. ① 상품<u>권</u>      ② 선거<u>권</u>      ③ 입장<u>권</u>      ④ 항공<u>권</u></p>

[그림 4] 의미적 감수성 평가 문항 유형

의미적 감수성 평가는 분리한 특정 한자 형태소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이 중 유형 2는 유형 2-1과 유형 2-2로 세분되며<sup>9)</sup> 총 15문항을 개발하였다. ‘2) 유형 1’은 주어진 두 개의 문장에 쓰인 한자어의 특정 한자 형태소를 보고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유형이다. ‘신제품’, ‘신도시’에서 ‘신(新-)’이 반복적으로 출현하여 문장에 쓰인 접두사 ‘신-’을 독립적으로 인지하고 그 의미가 ‘새로운’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유형이다. ‘3) 유형 2-1’은 주어진 하나의 문장에 쓰인 한자어의 특정 한자 형태소를 보고 동일한 소리를 가진 한자 형태소지만 의미가 다름을 인지하는

9) 이와 같이 의미적 감수성을 유형1과 유형2의 여러 종류의 유형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주어진 영역 안에서 어떤 사람의 능력과 지식을 한 가지 유형으로 판단하기 보다 다양한 유형으로 측정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유형이다. 문장에 쓰인 ‘운동장’의 ‘-장’을 통하여 ‘장소’라는 의미를 추측할 수 있고 ‘공연장’, ‘전시장’, ‘주차장’의 ‘-장(場)’과 ‘주방장’의 ‘-장(長)’이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를 것을 아는 것은 의미적 감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유형 2-1’이 문장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여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비하여 ‘4) 유형 2-2’는 동음 형태소 관계인 선택지의 단어들만 보고 의미가 다를 것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유형이다. ‘상품권’, ‘입장권’, ‘항공권’의 접미사 ‘-권(券)’이 ‘증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비해 ‘선거권’의 접미사 ‘-권(權)’은 소리는 같지만 ‘권리’라는 의미를 가져 서로 다른 의미임을 아는 것은 의미적 감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형 2-1과 유형 2-2는 크게 보면 같은 문항 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 작게 보면 미세한 의도 차이가 있다.<sup>10)</sup>

그리고 본 연구의 한자 형태소 감수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정된 한자 접사는 ‘국제통용한국어표준교육과정’의 어휘 목록에 제시된 접사를 모두 추출한 후, 본 연구의 접사 설정 기준<sup>11)</sup>에 부합하는 것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한자어 접사는 총 122개로 3급

10) Coady & Huckins(1997)에서는 학습자에게 ‘단어를 안다는 것’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분류하였는데 ‘문맥과 상관없이 단어의 형태와 의미가 자동적으로 인식되어지는 단어’, ‘형태와 의미가 학습자에게 어느 정도 친숙하지만 오직 문맥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단어’, ‘의미와 형태를 모르며 의미는 문맥 속에서 추론하거나 사전을 찾아야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로 구분하였다. 본고의 유형 2-1은 ‘형태와 의미가 학습자에게 어느 정도 친숙하지만 오직 문맥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단어’에 해당하며 유형 2-2는 ‘문맥과 상관없이 단어의 형태와 의미가 자동적으로 인식되어지는 단어’에 해당하여 유형 2-2가 더 높은 단계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11)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할 수 있으나 한국어에 동화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 문법의 특성과 고유어 문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하여 별도의 접사 설정 기준이 요구된다. 본 논의를 위하여 설정한 한자어 접사 설정 기준은 한자어는 일반적으로 특정 한자 형태소가 각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자어 접사의 1음절성을 설정 기준으로 하고, 자립적인 어기에 뜻을 더하는 한자어 접사의 의존성을 접사 설정의 기준으로 삼으며 한자어 접사가 어휘 생산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어 어휘 체계를 풍부하게 하므로 한자어 접사의 생산성 역시 설정 기준으로 삼는다.

24개, 4급 30개, 5급 52개, 6급 16개이다.

<표 2> 선정된 등급별 한자어 접사

등급	한자어 접사	개수
3급	-감(感), -물(物), -비(費), -장(場), -사(士), -심(心), -소(所), -친(親), -학(學)	9
4급	-가(家), -원(員), -관(館), -자(者), -권(權), 재(再)-, 대(大)-, 저(低)-, 무(無)-, -제(祭), 부(不)-, -제(劑), -사(社), 초(初)-, -성(性), -화(化), 신(新)-	17
5급	-가(街), -실(室), 고(高)-, -지(地), -액(額), -회(會)	6
6급	-권(券), -원(園), -증(證), -증(症)	4

여기에서 추출한 36개의 한자어 접사는 현재 대학기관에서 사용 중인 한국어 교재(서울대, 연세대, 경희대)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36개의 한자어 접사가 포함된 3음절 한자어 파생어를 대학기관 교재에서 선정하여 평가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자어 감수성 평가에 사용된 3음절 한자어 파생어 어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3> 3음절 한자어 파생어 어휘 목록

등급	3음절 한자어 파생어 어휘 목록
1급	미용실, 박물관, 운동장, 운동화, 종업원, 학생증, 회사원
2급	관광지, 교통비, 변호사, 소화제, 신분증, 여행지, 음악가, 입장권, 주차장, 항공권
3급	공연장, 노약자, 대청소, 동호회, 면허증, 무조건, 방송사, 분실물, 불규칙, 불균형, 사업가, 생활비, 세탁물, 신문사, 영양제, 우편물, 주유소, 중심지, 진통제, 환영회, 회의실
4급	가능성, 과소비, 관계자, 대규모, 대기업, 무관심, 무의미, 불가능, 상담원, 소비자, 신제품, 자격증, 자신감, 작곡가, 전시장, 정보화, 책임감, 초겨울
5급	견망증, 경제학, 고아원, 고학력, 고혈압, 대가족, 도시화, 보편화, 상품권, 생활화, 신도시, 영화제, 재개발, 주방장, 출판사, 친환경, 통신비
6급	고소득, 투표권, 협동심

### 3.2.2. 한자어 어휘력 평가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 형태소 감수성과 한자어 어휘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어휘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기준으로 평가 도구 개발하였다.

#### (가) 한자어 어휘력 평가 문항 개발 지침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문항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한자어 어휘력 평가는 한자 형태소 감수성 평가와 함께 실시되므로 지나치게 문항이 많아지게 되면 학습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평가의 실용성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자어 어휘력 평가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문항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문항 작성 지침에 따라 총 30문항을 개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양적 어휘력과 질적 어휘력 중에서 질적 어휘력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문항 유형은 사지선다형 유형으로 개발하여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문항의 선택지의 한자어 어휘들은 품사, 음운 현상, 글자 수를 동일하게 하였다.

넷째, 어휘력 평가는 어휘 자체만을 평가 대상으로 하였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기능을 배제하고 어휘만을 분리하여 평가하였다.

다섯째, 각 문항에 사용되는 어휘들은 서로 배타성을 가져 타 문항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도록 하였다.

여섯째, 한자어 어휘력 평가의 형식은 공인된 한국어능력시험의 틀을 사용하되 독립된 어휘 평가 방식인 개편 전의 형식을 사용하였다. 그리

고 평가 문항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거나 새롭게 작성하여 문맥에 알맞은 어휘 고르기, 유의어 고르기, 반의어 고르기 세 가지 유형으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일곱째, 한자어 어휘력을 평가하기 위한 한자어는 ‘국제통용한국어표준교육과정’의 어휘 목록의 한자 접사를 기준으로 급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3종의 대학 기관 교재(서울대, 연세대, 경희대)의 고빈도 한자어, 한국어능력시험 어휘목록<sup>12)</sup> 중의 한자어, TOPIK 기출 문제의 고빈도 한자어, 한자 형태소 감수성 평가에 쓰인 한자어를 서로 비교하여 한자어 어휘를 선정하였다.

여덟째, 개발된 한자어 어휘력 평가지를 구글 설문지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평가는 총 7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 시간은 60분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TOPIK II의 경우 총 50문항, 70분으로 한 문항당 약 1.4분이 소요된다. 이를 기준으로 본 연구의 평가 시간을 산정하였는데 한자 형태소 감수성 평가는 TOPIK과는 달리 깊게 생각하고 답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바로 응답하는 문항들이다. 그리고 평가는 온라인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실험 참여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경우 사전을 찾는 등의 변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한다.

#### (나) 한자어 어휘력 평가 문항 유형 및 내용

한자어 어휘력 평가 내용 및 유형은 한자어 어휘력의 정의와 개편 전의 한국어능력시험을 토대로 ‘문맥에 알맞은 어휘 고르기, 유의어 고르기, 반의어 고르기’ 등 세 유형이다.

---

12) TOPIK 한국어능력시험 <https://www.topik.go.kr/> 홈페이지 자료실에 ‘한국어능력시험 어휘 목록’ 초급과 중급이 탑재되어 있다.

<표 4> 한자어 어휘력 평가 내용 및 유형

평가 내용	유형	문항 수
어휘 사용 능력 측정	문맥에 알맞은 어휘 고르기	10문항
유의어 사용 능력 측정	유의어 고르기	10문항
반의어 사용 능력 측정	반의어 고르기	10문항

한자어 어휘력 평가는 문맥에 알맞은 어휘 고르기 10문항, 유의어 고르기 10문항, 반의어 고르기 10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유형	제시 문항
5) 문맥에 알맞은 어휘 고르기	다음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                    )을 개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① 창의력    ② 신제품    ③ 목적지    ④ 사용법

[그림 5] 문맥에 알맞은 어휘 고르기 평가 문항 유형

[그림 5] ‘5) 문맥에 알맞은 어휘 고르기’는 단어에 대한 의미의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하나의 문장에 빈칸을 주고 문맥에 알맞은 한자어를 골라 문장을 완성하는 유형이다.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여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단어를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유의어 고르기	다음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15. 같은 재료라도 <u>조리법</u> 에 따라 완전히 다른 맛을 낼 수 있다. ① 치료법    ② 요리법    ③ 높임법    ④ 표기법
------------	--

[그림 6] 유의어 고르기 평가 문항 유형

[그림 6] ‘6) 유의어 고르기’는 문장에 쓰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단어의 의미와 유사한 관계의 단어를 아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유의어 고르기’ 유형은 하나의 문장을 제시하고 밑줄 친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고르는 유형이다. 15번에서 ‘조리법’은 ‘조리-법: 음식을 만드는 방법’과 ‘요리-법: 음식을 일정하게 만드는 방법’이 유의어로 쓰였다. 이는 ‘조리법’이 포함된 문장에 ‘요리법’으로 교체했을 때 ‘같은 재료라도 요리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맛을 낼 수 있다.’와 같이 의미 차이가 없으므로 유의관계로 볼 수 있다. 주어진 단어와 의미가 비슷한 다른 단어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단어를 알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7) 반의어 고르기	<p>다음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반대되는 것을 고르십시오.</p> <p>22. 우리 식품의 <u>안전성</u>은 제가 보장하니 안심하고 드십시오.</p> <p>① 필요성    ② 인간성    ③ 위험성    ④ 정확성</p>
------------	--

[그림 7] 반의어 고르기 평가 문항 유형

[그림 7] ‘7) 반의어 고르기’는 문장에서 쓰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단어의 의미와 반대인 단어를 아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반의어 고르기’ 유형은 하나의 문장을 제시하고 밑줄 친 단어와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를 고르는 유형이다. 22번은 ‘안전성’의 반의어 ‘위험성’을 묻고 있다. 주어진 단어와 의미가 반대되는 다른 단어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단어를 알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4. 결과 분석

### 4.1. 한자 형태소 감수성 평가 분석

한자 형태소 감수성 평가는 3음절 한자어를 구성하는 접사에 대한 감수성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형태적 감수성과 의미적 감수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R기반 오픈 소스 프로그램인 jamovi version 1.1.7<sup>13)</sup>를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먼저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내적신뢰도(Cronbach  $\alpha$ )를 검증하였다.<sup>14)</sup> 그 결과 크론바흐알파계수<sup>15)</sup>가 0.837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5> 한자 형태소 감수성 평가의 문항내적신뢰도

	Cronbach's $\alpha$
한자 형태소 감수성	.837

그리고 수집한 평가 자료는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균은 0.862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의 감수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3) jamovi 프로그램은 기존의 상업용 프로그램인 SPSS와 SAS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R 프로그램에 기초해서 탄생한 무료 공개 프로그램이다. jamovi 프로그램은 SPSS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통계분석을 대화상자로 제공하며 대화상자 옵션을 클릭함으로써 모든 통계분석 결과가 제공되기 때문에 통계분석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다(설현수, 2020: 17).

14) 신뢰도(reliability)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고 정확하게 재고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문항내적신뢰도(Cronbach  $\alpha$ )는 검사의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험자가 얼마나 일관성있게 반응하는가 정도로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설현수, 2019: 250).

15) 크론바흐알파(Cronbach  $\alpha$ )계수는 시험 문제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계수로 시험 문항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계수는 0~1의 값을 갖는데 값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는데 보통 0.8~0.9의 값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며 0.7 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lt;표 6&gt; 한자 형태소 감수성 평가의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Shapiro-Wilk W	Shapiro-Wilk p
한자 형태소 감수성	60	.3	1	.862	.136	.8	< .001

그리고 한자문화권 학습자와 비한자문화권 학습자 간의 한자 형태소 감수성 평가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형태적 감수성 평가에서 두 집단 간 형태적 감수성이  $p$ 값 0.04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한자문화권 학습자의 형태적 감수성은 평균 0.88, 비한자문화권 학습자의 평균은 0.80으로 한자문화권 학습자의 형태적 감수성이 비한자문화권 학습자에 비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미적 감수성에서도 한자문화권 학습자는 평균 0.90, 비한자문화권 학습자의 평균은 0.88로 한자문화권 학습자의 의미적 감수성의 평균이 조금 더 높았다.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들보다 한자문화권 학습자들의 형태적 감수성이 더 높게 형성된 것은 그들이 모국어에서 한자 하나하나가 형태소로 기능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한 지식이 한국어 어휘 학습 과정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4.2. 한자어 어휘력 평가 분석

한자어 어휘력은 ‘문맥에 알맞은 어휘 고르기’, ‘유의어 고르기’, ‘반의어 고르기’ 세 유형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어 학습자 60명의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내적신뢰도(Cronbach  $\alpha$ )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0.857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표 7> 한자어 어휘력 문항내적신뢰도

Cronbach's α	
한자어 어휘력	.857

한자어 어휘력 평가 결과에 대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은 0.873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의 어휘력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한자어 어휘력 평가의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Shapiro-Wilk W	Shapiro-Wilk p
한자어 어휘력	60	.267	1	.873	.148	.8	< .001

그리고 한자문화권 학습자와 비한자문화권 학습자 간의 한자어 어휘력 평가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한자어 어휘력 평가와 문맥에 알맞은 어휘 고르기, 유의어 고르기, 반의어 고르기 모두에서 한자문화권 학습자가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

4.3. 한자 형태소 감수성과 한자어 어휘력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3음절 한자어의 형태소를 분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지, 분리한 한자 형태소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한자 형태소 감수성이 한자어 어휘력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한자 형태소 감수성과 한자어 어휘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스피어만(Spearman) 상관계수<sup>16)</sup>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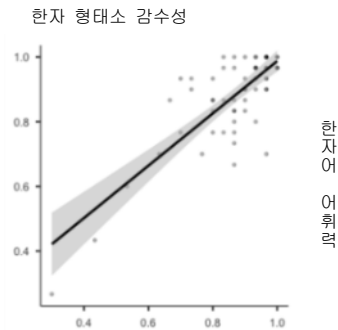
16) 스피어만(Spearman) 상관계수는 두 변수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을 때 사용하는 비모수 상관관계 분석 방법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열(순위)척도에 의한 변수일 경우에 사용한다. 비모수 통계는 평균보다 중위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모수통계에 비해 이상치(두변수가 갖는 값의 경향에서 매우 동떨어진 값)

<표 9> 한자 형태소 감수성과 한자어 어휘력 간의 상관계수

		한자 형태소 감수성
한자어 어휘력	Spearman rho	.615***
	p값	< .001

\*p<.05,\*\*p<.01,\*\*\*p<.001

<표 9>에 따르면, 스피어만(Spearman) 상관계수에서 산출된 p값이 0.001보다 작아 상관계수 0.61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한자 형태소 감수성과 한자어 어휘력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자 형태소 감수성과 한자어 어휘력 간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8] 한자 형태소 감수성과 한자어 어휘력 간의 상관관계

의 영향을 덜 받는다. 상관계수의 범위는 -1.0 이상이고 +1.0 이하이다. 상관계수의 범위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은 다음과 같다(성태제2009: 112-119).

상관계수에 따른 상관계수의 언어적 표현

상관계수 범위	상관계수의 언어적 표현
.00 ~ 20	상관이 매우 낮다.
.20 ~ 40	상관이 낮다.
.40 ~ 60	상관이 있다.
.60 ~ 80	상관이 높다.
.80 ~ 1.00	상관이 매우 높다.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한자 형태소 감수성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고 한자어 어휘력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자 형태소 감수성과 한자어 어휘력은 양(+)의 비례관계를 나타내는데, 한자 형태소 감수성의 정도가 높으면 한자어 어휘력 수준이 높고 한자 형태소 감수성의 정도가 낮으면 한자어 어휘력의 수준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자어에서 접사를 분리적으로 인식하여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이 높으면 그에 비례하여 한자어 어휘력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한자 형태소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한자 형태소 감수성에 초점을 둔 어휘 교육을 실시할 경우 어휘력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보다 효과적인 어휘 교육이 되고, 나아가 한국어 어휘에 대한 이해 능력과 어휘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한자 형태소 감수성과 한자어 어휘력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고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TOPIK 3급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3음절 한자어의 특정 한자 형태소를 분리적으로 인식하는지, 분리된 특정 한자 형태소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형태적 감수성과 의미적 감수성을 설문지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한자어 어휘력을 평가하여 한자 형태소 감수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자 형태소 감수성 평가에서 0.862로 높은 평균을 보였고 한자어 어휘력 평가에서도 평균 0.873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 또한 한자 형태소 감수성과 한자어 어휘력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한자 형태소 감수성이 높으면 한자어 어휘

력도 높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자 형태소 감수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어휘 교육 현장에서 한자 형태소에 집중하여 알아차리게 하는 한자 형태소 감수성을 키워주는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한자어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고 그러한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주 쓰이는 접두사나 접미사를 중심으로 하는 어휘 교육을 강화하여 한자 형태소 감수성을 키워준다면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자어 어휘력도 향상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어 어휘력이 증진될 것이다.

그동안 어휘 교육에서 접사 등을 활용한 교육의 효율성을 주장한 논의들은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논의에서는 어휘 교육의 교수·학습 부분에 초점을 두어 접사 교육의 효율성을 주장하였으나 한자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형태와 의미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이 한자어 어휘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상관관계를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자 형태소 감수성의 형성 정도와 한자어 어휘력 간의 상관관계를 실험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도구(어휘의 난이도, 문항 수), 실험 집단의 범위와 규모, 실험 환경 등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평가 도구를 최대한 신중하고 정교하게 설계하고자 하였지만 그 한계를 인정한다. 우선 실험에 사용한 어휘는 중급 어휘가 70%, 고급 어휘가 30%로 난이도 설정이 정교하지 않았다. 즉 평가 문항에 사용된 어휘가 이미 알고 있는 어휘일 경우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sup>17)</sup> 따라서 고급 단계를 넘어서는 초고급 단어

---

17)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단계에 따라 문항의 단어가 이미 아는 단어인지 그렇지 않은 단어인지에 따라 학습자들의 같은 응답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에 본 연구자도 전적으로 동의하며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초고급 수준의 단어와 비단어)를 나누어 제시하여 다

나 비단어도 포함하여 실험하였다면 좀 더 흥미가 있는 연구가 되겠지만 본고에서 이러한 연구까지 다루지 못한 점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둘째, 본 연구는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얻었으며 추후 좀 더 큰 집단으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실험 참여자는 한국어 숙달도가 5급 이상이 73.3%로 전체 참여자 60명 중 절반이 넘는 비율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규성을 보이지 않고 우측으로 기운 분포를 보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숙달도별, 성별, 학습 시간별, 한자문화권·비한자문화권별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석한다면 더 다양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확하고 정밀한 결과 값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동일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실험을 실시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구본관 외 4인(2018),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김광해(1997), 『어휘력과 어휘력의 평가』, 『산청어문』, 25권 1호, 1-29쪽.  
김규철(1997), 『한자어 단어형성에 대하여』, 『국어학회』, 29, 261-308쪽.  
김정남(2005), 『韓國語教育에서 漢字教育의 위상과 방향』,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양한 측면에서 평가 문항을 설계해야 했지만 본 연구의 분량상의 한계와 실험 규모의 한계 때문에 다루지 못한 점은 부족함으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33권 3호. 399-424쪽.

- 김창섭(2001), 『한자어 형성과 고유어 문법의 제약』, 『국어학』, 37권, 177-195쪽.  
노명희(1997), 『한자어 형태론』, 『국어학』, 29권, 309-339쪽.  
노명희(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성태제(2009), 『현대 기초통계학의 이해와 적용(개정 5)』, 교육과학사.  
성태제(2014), 『알기쉬운 통계 분석(개정 2판)』, 학지사.  
송원용(2002), 「국어 어휘부와 단어 형성 체계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시정곤(2001), 『국어 어휘부 사전에 대한 연구』, 『언어연구』, 17권 1호. 163-184쪽.  
심재기(1987), 『한자어의 구조와 그 조어력』, 『국어생활』, 8호, 25-39쪽.  
안소진(2011), 「심리어휘부에 기반한 한자어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영희(2008),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임지룡(1998), 『어휘력 평가의 기본 개념』, 『국어교육연구』, 30권 1호, 1-41쪽.  
주지연(2017), 『한국어 한자 형태소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1)』, 『어문연구』, 45권 1호, 67-98쪽.  
진바오치양(201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을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박사학위논문.  
채현식(2000), 「추측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박사학위 논문.  
최형용(2013), 『어휘부와 형태론』, 『국어학』, 66권, 361-413쪽.

<온라인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TOPIK 한국어능력시험, <https://www.topik.go.kr/>

구글, <https://google.com/>

☐ 박영주

- ☎ 소 속: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석사과정  
☎ 주 소: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 전자우편: [smangka@hanmail.net](mailto:smangka@hanmail.net)

☐ 이선웅

- ☎ 소 속: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

한자 형태소 감수성을 통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어 교육 연구 (박영주, 이선웅)

✽ 주 소: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 전자우편: [anhung@khu.ac.kr](mailto:anhung@khu.ac.kr)

◎ 논문접수: 2020년 11월 23일

◎ 논문심사: 2020년 12월 9일 ~ 12월 15일

◎ 게재결정: 2020년 12월 17일

<Abstract>

## Sensitivity to the Morphemes of Chinese Characters: A Study for Teaching Chinese Character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Park, Young-joo · Yi, Seon-ung

(KyungHee University) · (KyungHee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Korean language learners' sensitivity to Sino-Korean morphemes and their Sino-Korean lexical competence. It will then go on to find implications for a lesson on Sino-Korea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study suggests that Korean language learners are sensitive to Sino-Korean morphemes when describing their ability to recognize Sino-Korean morphemes separately during Korean language lessons and to guess their meaning. The study has measured sensitivity to Sino-Korean morphemes and analyzed its correlation with a learner's Sino-Korean lexical competence. As a result, the research has been able to establish a statistically strong positive correlation. The results show that higher sensitivity to Sino-Korean morphemes leads to stronger Sino-Korean lexical competence. This implies that strengthening on Sino-Korean education morphemes can be a more effective vocabulary lesson for learners with weak Sino-Korean lexical competence. Therefore,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a form of education that improves the lexical competence of Korean language learners by implementing a lesson in Sino-Korean that enhances their sensitivity to morphemes.

Keywords: : sensitivity to morphemes Sino-Korean, Sino-Korean lexical competence,



lesson in Sino-Korean